

## 何夢瑤의 生涯와 醫易思想에 關한 研究

<sup>1</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sup>1</sup> \*

### A Study on He Meng-Yao's(何夢瑤) Idea of Medicine of divination(醫易)

Yun Chang-Yeol<sup>1</sup> \*

<sup>1</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He Meng-Yao(何夢瑤), a doctor from Qing Dynasty, wrote *Yi Bian*(醫編, Fundamentals of Medicine), in which he described many things related to Medical Medicine of divination(醫易). As the content includes a lot of teachings for the posterity, I have studied it.

**Methods** : I have taken from *Yi Bian*(醫編) the selections related to Medicine of divination(醫易) and explained them.

**Results** : While accepting the principle of upholding yang and suppressing yi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Changes(周易) that takes a superior man for yang and a small man for yin, He Meng-Yao(何夢瑤), who thought of both yin and yang as *Qi* (energy), criticized the contemporary malpractice of uniformly applying the principle. In matching the five viscera to the Eight Trigrams(八卦), he put Qian and Dui Trigram(乾兌) to lung, Kan Trigram(坎卦) to kidney, Zhen and Xun Trigram(震巽) to liver, Li Trigram(離卦) to heart, and Kun and Gen Trigram(坤艮) to spleen, which is reasonable. He didn't fix the position of the vital gate and called it Fire in water(水中之火), and set great store by the role of Fire from Vital Gate(命門火) by calling it Water begetting tree(水生木) when the fire of the vital gate steams the kidney water and turns it into *Qi* to send it up to liver. He emphasized Water-ascending and Fire-descending(水升火降), which he said involves all five viscera. He also argued that mind runs on the principle of water-ascending and fire-descending. He thought that *Qi* and blood both originate from kidney, which I think is a significant suggestion.

**Conclusions** : The criticism on the uniform application of upholding yang and suppressing yin, the combination of the five viscera and the Eight Trigrams(八卦), the belief that the Vital gate(命門) is Fire in water(水中之火), the excellent opinion on water-ascending and fire-descending, and the suggestion that *Qi* and blood both originate from kidney, as presented by He Meng-Yao(何夢瑤), are all theories that should be reasonably appreciated and further developed by the posterity.

**Key Words** : He Meng-Yao(何夢瑤), Medicine of divination(醫易), *Yi Bian*(醫編), the Eight trigrams(八卦), vital gate(命門), *Qi* and blood(氣血)

## 1. 서론

何夢瑤는 그리 흔하지 않는 進士출신의 의가이다. 중국의 隋나라 때부터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후 省에서 보는 鄉試에 합격한 자를 舉人이라하고 首都에서 실시한 殿試에 합격한 자를 進士라고 하는데 進士出身者는 일단 뛰어난 인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進士출신의 의가를 살펴보면 宋代에는 朱肱과 許叔微가 있었고 明代에는 王綸, 劉若金, 王肯堂, 武之望, 方以智 등이 있었으며 清代에는 陳念祖, 何夢瑤, 唐宗海등이 손꼽힌다. 벼슬을 하면서 醫術을 베풀었던 人物로는 張仲景이 대표적이지만 何夢瑤도 입지에서 일면 백성을 다스리면서 또 일면으로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책이 그의 대표저서인 『醫編』이다.

이 책 속에는 一般 雜證을 치료하는 모든 병증들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卷一에는 18편의 論說이 있는데 여기에는 醫易과 관련된 여러 편의 論說이 있다.

그의 論說들은 내용이 정확하고 설명이 명쾌하며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어 後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열어준다. 이에 論者는 『醫編』에 있는 醫易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研究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고 아울러 그의 生涯와 著書도 함께 研究하여 學界에 보고하는 바이다.

## 2. 何夢瑤의 生涯와 著書

### 1) 生涯

何夢瑤의 字는 報之이고 號는 西池이며 만년에는 스스로 研農이라고 稱했는데 광동성 南海縣 雲津堡 사람이다. 『南海縣志』와 『廣州府志』에 의하면 그는 1693년에서 1764년까지 72세를 살았다. 그는 어렸을 때 妻子의 노복과 여종들이 십 수인에 이르렀고 數十畝의 밭이 있어 衣食이 넉넉했으며 뜻이 豪放하였다. 그는 諸生으로 있을 때 文名이 세상에 널리

퍼져 學士 惠公이 南海明珠라고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에 詩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醫術 등 그의 다른 技藝가 가려지게 되었다. 己酉年 (1729년) 그의 나이 37세 때 水利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데 선발되었을 때 그는 의학으로 비유하여 친절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천 글자에 이르거늘 學士 顧公이 그를 몹시 칭찬하고 그를 뽑아 으뜸 되는 자리에 두었다.

그는 38세가 되던 1730년 進士에 올랐고 詩·文學·音律·算術·曆法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sup>1)</sup> 그의 友人 辛昌五는 『醫編』의 序에서 하몽요가 그와 西曆, 平弧, 三角, 八綫 등의 이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 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그는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여 그의 學識이 깊고 넓음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한 후에 義寧(지금은 光서성 臨桂縣, 靈川縣에 편입), 陽朔, 岑溪, 思恩 등 四縣(모두 光서 장족 자치구에 있다.)의 縣官을 역임했고 다시 전보되어 遼陽(요령성에 있다.)에서 管理생활을 하였으며 모두 善政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任職하는 시기에 항상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였다. 思恩(지금은 光서성 環江縣)에 있을 때 전염병(瘟疫)이 유행하자 그는 처방을 내어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약을 먹은 자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制府 (청대의 總督) 策公이 처방을 郡邑에 알려 살아난 자가 아주 많았다고 한다. 그는 벼슬하는 것이 결코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開業을 하여 自給自足하면서 濟世利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醫家로써 一生을 마쳐 사람들의 깊은 稱訟을 받았다.<sup>2)</sup> 그는 38세에 進士에 급제하였고 趙林臨의 序文에 庚午年에 향리로 돌아왔다고 하였으니 庚午年은 1750년에 해당함으로 20년간 벼슬살이를 하고 58세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때부터 전적으로 醫療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인 1751년에 『醫編』을 완성하였고 7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책을 지으면서 一生을 마쳤다.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4년 04월28일), 수정일(2014년 05월15일),

게재확정일(2014년 05월16일).

1)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2)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 2) 著書

그의 저서로는 『醫編』 외에 『醫編』의 凡例에서 『傷寒論近言』, 『婦科輯要』, 『幼科輯要』, 『痘疹輯要』, 『本草韻語』, 『針灸吹雲集』 등서가 있다고 하였고<sup>3)</sup> 『廣州府志』에서는 『粵台徵雅錄』을 인용하여 그의 저서에 『紺山醫案』이 있다고 하였는데 후세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中醫圖書聯合目錄』에서는 『醫方全書』, 『神效脚氣秘方』 4卷, 『追癆仙方』 2권, 『婦科良方』, 『幼科良方』, 『痘疹良方』, 『何氏醫編』 7권, 『樂只堂人子須知韻語』 4권, 『本草韻語』 1권, 『婦兒痘三科輯要』가 있다고 하였다.<sup>4)</sup> 그의 대표적 의서는 『醫編』이다. 서문을 보면 이 책은 乾隆16년(1751년) 그의 나이 59세 때 쓰여진 책이다. 그는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凡例에서 “증상을 論함에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면 당연한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이 책은 근원을 힘써서 밝혔기 때문에 증상은 상세하게 밝혔고 관련 처방은 간략하게 기술했다”고 하였으며 또 “그 이치를 알면 처방은 그 속에 있다. 만약 古人들의 成法을 고찰하고 싶으면 『證治準繩』등의 책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sup>5)</sup>라고 하였다.

또 그는 凡例에서 “이 책은 벼슬살이 할 때 지은 책이다. 광서에서부터 요령에 이르기까지 벼슬길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거나 수레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小吏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体裁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確立적으로 改正하고자 했으나 일이 많아 짧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 책은 王肯堂의 『證治準繩』을 추종하고 있으며 많은 처방을 『證治準繩』으로부터 引用하고 있다.

이에 대해 辛昌五는 序文에서 “王肯堂선생의 『證治準繩』이 人口에 膾炙하고 있는데 나의 친구 河西池는 근대 의서 중에서 이를 으뜸이라 稱하고 그 책의 내용이 깊고 넓고 읽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

醫編』을 지어서 보충한 것이다. 이 책은 글은 간략하지만 뜻은 넓고 내용이 깊으면서도 쉽게 설명하였으니 마땅히 『증치준승』과 함께 전해도 손색이 없다. 이 두 사람(왕금당과 하몽요)은 文學으로 이름난 선비로써 의학의 심오한 내용을 계발하였으니 마땅히 먼 후대까지 전할 만 하다. 왕금당이 『證治準繩』을 지을 때 벼슬에서 파면 당하였고 西池도 『醫編』을 지을 때 남모르게 근심하는 병이 있었으니 이른바 公궁과 근심 속에서 책을 지은 자들이 아닌가”<sup>7)</sup>라고 하였다.

王肯堂(1549-1613)은 萬曆17년(1589년)에 進士가 되었고 日本이 朝鮮을 침범하자 十義를 上疏하여 御史가 되어 海上에서 練兵할 것을 請願하였다. 上疏가 稽留中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고향에서 의학을 연구하여 사람들을 잘 치료하여 醫術로 이름을 날리었고 『六科準繩』을 지었다.<sup>8)</sup> 왕금당의 의학적 특징을 『四庫全書總目』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寒法, 溫法, 攻法, 補法에 대해서 치우친 바가 없다. 목회용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허실을 불문하고 단지 石膏의 효능만을 말하고, 장개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증상을 진단하지도 않고 먼저 인삼을 쓸려는 생각을 갖는 것에 비교해 볼 때 그는 또한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9)</sup>

왕금당은 四大家에 대해서 치우친 바가 없었고 하몽요는 왕씨의 주장을 계승하여 당시 의가들이 濫補에 치우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醫編』을 쓸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醫編』의 編字는 수레를 탈 때 밧는 디딤돌의 뜻으로 의학을 배우는 자들의 계단이 되는 入門書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時醫들의 폐단을 바로 잡는 砭石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그의 自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지금 『景岳全書』가 성행하여 육계와 附子の 酷烈함이 崑崙산에 불이 나서

3)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2.

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494.

5)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6)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7)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3.

8) 洪元植 外 2人. 韓中醫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345.

9) 永塔等撰.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p.875.

玉石을 다 태움과 같다. 사람들이 다 그대가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른다. 이 책이 출판되면 지금 의사들을 치료하는 藥石이 될 것 같으니 偏이란 글자는 마땅히 砒字로 써야할 것이다. 내가 웃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았다.”

위의 내용을 보면 『醫編』의 뜻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문서의 뜻뿐만 아니라 時醫들의 폐단을 바로 잡는 砒石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扶陽抑陰하여 溫補만 하는 時弊를 바로잡았다.

한의학에서 질병이란 陰陽의 均衡이 깨진 상태를 말하고 그 치법은 陰陽의 均衡을 맞추고 陰陽의 調和를 이루어 陰平陽秘의 상태에 이르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金元時에 이르러 유하간이 主火論을 제창하고 주단계가 陽有餘陰不足論을 주장한 이후 滋陰降火의 治法이 유행하게 되었고 張介賓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陽非有餘論을 주장하고 明代에 溫補派의 가들이 출현한 이후 다시 抑陰扶陽 치법이 득세하였다. 그렇지만 何夢瑤는 이 중의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당시에 성행하던 溫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醫編』의 凡例에서 “유하간이 暑火를 말한 것은 尙中경이 風寒을 論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고, 주단계가 陰虛를 말한 것은 이동원이 陽虛를 論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니 모두 앞 사람들의 미비점을 보충한 것이지 한 쪽을 고집한 것이 아니다. 후인들은 걸핏하면 유하간, 주단계는 寒涼에 치우쳤기 때문에 溫補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立論이 지나쳐서 드디어 극심한 폐단을 열어 놓게 되었다. 오늘날 肉桂, 附子의 독은 刀鋸(옛날 형벌에 쓰던 칼과 톱)와도 같다. 나 何夢瑤는 시대의 폐단을 목격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한쪽을 고집한 것이 아니니 독자들은 책의 내용으로 뜻을 헤치지 말기를 바란다.”<sup>10)</sup>고 하였다.

또 『醫編』 趙林臨의 序에서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庚午년(1750년) 여름 나의 아내가 2개월 동안 병을 앓아 조금도 낫지 않았는데 모든 의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치료에 손을 놓았다. 마침 하몽요가 벼슬을 그만두고 마을에 돌아오거늘 급히 왕진을 청해 진찰을 받았다. 그가 선후로 대승기탕, 백호탕, 소시호탕 수십 제를 처방하자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모든 의사들이 陽虛하니 扶陽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삼과 부자가 아니면 쓰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대만이 홀로 반대로 한 것은 어찌서 인가. 내가 말하였다. 이것은 粗工이 알바가 아니다. 또한 이들은 망령되어 주역의 뜻을 인용하여 걸핏하면 扶陽抑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역에서는 陽이 君子가 되고 陰이 小人이 되기 때문에 扶陽抑陰하는 것이 옳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陰陽은 모두 氣인 것이다. 氣는 正氣 아니면 邪氣니 정기가 허하면 陰陽을 막론하고 모두 보충해 주는 것이 옳고, 사기가 왕성하면 寒暑를 막론하고 모두 억제하는 것이 옳으니 어찌 서쪽의 것을 가져다가 보충해 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溫補하면 起死回生할 수 있다고 여기나 熱이 안에 잠복해 있을 때 함부로 육계 부자를 쓰는 경우가 있음을 알지 못하니 誤服하면 殺人까지 불러 옴을 모르는 것이다. 承氣湯에 있는 대황과 朴硝는 回陽之上品이기 때문에 능히 補할 수도 있는 것이다. 補瀉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병의 허실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證인지도 묻지 않고 한결같이 溫補만 하니 또한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또 그가 말하였다. 의사들 중에 몹시 교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庸醫들은 溫補가 殺人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平穩하다고 여겨 쓰고, 교활한 의사들은 溫補가 殺人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 않으므로 藏拙할 수 있다고 여겨서 쓴다. 그리하여 尙中의 책이 天下에 두루 퍼짐에 유하간과 주단계의 학문이 단절되었다. 邪道를 막고 正道를 지키는 일(距邪闢正)을 내가 그만 둘 수 있겠는가”<sup>11)</sup>

10)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몽요는 辨證施治하여 補虛瀉實할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의가들이 허실을 불문하고 溫補만 하려는 時弊를 목격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清熱瀉火와 滋陰降火의 처방도 중시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주역의 陰陽은 君子와 小人을 상징하고 의학에서 말하는 陰陽은 모두 氣여서 兩者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한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 4. 오장의 팔괘배합

하몽요는 五藏配五行八卦說을 지어 오장을 팔괘와 배합하였는데 그 이론이 대단히 명쾌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心肺는 횡격막 위에 자리하는데 肺의 位置가 더 높으니 하늘의 分野이다. 그러므로 乾金에 屬한다. 肝腎은 下部에 位置하는데 腎이 더 아래에 있어 黃泉의 分野가 된다. 그러므로 坎水에 屬한다. 坎은 바깥이 陰이고 內部가 陽으로서 陽氣가 黃泉 中에 潛伏되어 있다가 高요함이 極에 達하면 다시 움직이므로 冬至에 一陽이 생기고, 驚蟄이 되면 우리가 地에서 나오니 腎水가 命門火의 焰을 얻어 氣로 변화하여 위로 올라가면 肝이 이를 받아 上升케 한다. 그러므로 肝은 時에 있어서는 봄이고 象에 있어서는 木이며, 卦에 있어서는 震雷, 巽風이다. (肝이 성내어 氣가 盛한 것이 이와 같다.) 陽氣가 上升하여 心에 이르면 盛해지는데 陽이 盛하면 火가 되므로 心은 火에 屬하며 卦에서는 離가 되니 離는 南方의 卦이다. 聖인이 남쪽을 향해 다스릴 때에 心은 肺의 아래에 位置하니 乾卦의 九五에 該當하니 실로 君主로써 神明이 여기에서 나온다. 離는 乾의 中劃이 變한 것이고 兌는 乾의 上劃이 變한 것이다. 肺는 心의 위에 位置하니 乾의 上劃이니 上劃이 變하면 兌가 된다. 時에 있어서는 가을이고, 象에 있어서는 金이니 金은 가라앉는 性質이 있고 秋氣는 收斂하며 陽氣의 上升이 極에 達하면 下降하는데 肺로부터 下降하므로 肺는 兌金에도 屬한다. (心火가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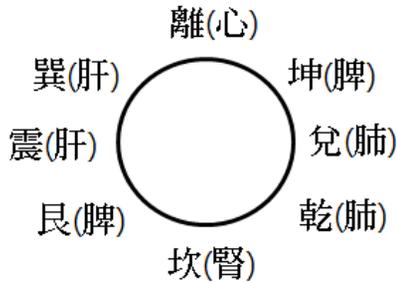
서 나오르고 腎水가 아래에서 적셔 주는 것은 坎離의 정해진 位置이고, 火가 위에서 下降하고 水가 아래에서 上升하는 것은 坎離가 交媾하는 것이다. 腎水가 上升하는 것은 肝木에서 汲引하기 때문이니 地道가 左旋하면서 天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心火가 下降하는 것은 肺金에서 收斂, 抑制를 하기 때문이니 天道가 右旋하면서 地로 들어가는 것이다.) 脾는 中央에 位置하여 上下升降의 中心點이 되니 飲食이 위로 들어가면 脾가 그 氣를 上下內外로 運行시키니 마치 土가 四時에 化氣를 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土에 屬하니 卦에 있어서는 坤, 艮이 된다. 金, 木, 土는 모두 두 卦와 配合되고 水, 火는 각각 한 卦를 主管하므로 五行에서 오로지 水, 火의 作用만이 홀로 專一하다.

(心肺는 位居膈上 而肺尤高하니 天之分也라 故로 屬乾金이요 肝腎은 位下 而腎尤下하니 爲黃泉之分이라 故로 屬坎水라 坎은 外陰而內陽이니 陽氣潛藏于黃泉之中이라가 靜極復動 故로 冬至而一陽生하고 驚蟄而雷出于地하니 腎水得命門火所蒸하여 化氣以上하면 肝受之而升騰이라 故로 肝은 于時爲春이오 于象爲木이오 于卦爲震雷 巽風이라 (肝之怒而氣盛如之라) 陽氣上升하여 至心而盛하니 陽盛則爲火라 故로 心屬火이오 于卦爲離니 離는 南方之卦也라 聖人向明而治에 心居肺下하니 乾卦之九五也니 實爲君主로 神明出焉하니라 離는 乾中畫之變也오 兌는 乾上畫之變也라 肺居心上하니 乾之上畫也니 上畫變而爲兌라 于時爲秋오 于象爲金이니 金性沈降하고 秋氣斂肅하며 陽氣升極而降이 由肺而降 故로 肺又屬兌金이니라 (心火上炎 腎水下潤은 坎離之定位也오 火在上而下降하고 水在下而上升은 坎離之交媾也라 腎水上升은 由肝木之汲引이니 地道左旋而上于天也오 心火下降은 由肺金之斂抑이니 天道右旋而入于地也라) 脾臟居中하여 爲上下升降之樞紐니 飲食入胃에 脾爲行運其氣于上下內外하니 猶土之布化于四時라 故로 屬土니 于卦에 爲坤爲艮이라 金木土는 皆配兩卦 而水火는 各主一卦라 故로 五行에 惟水火之用이 爲獨專也니라)”<sup>12)</sup>

11)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2.

12)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3~4.

이를 文王八卦圖의 순서에 의해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五臟	肺	腎	肝	心	脾
五行	金	水	木	火	土
八卦	乾, 兌	坎	震, 巽	離	坤, 艮

위의 내용을 필자의 해석을 더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肺는 오장의 제일 꼭대기에서 오장육부를 싸는 華蓋가 되니 이는 마치 하늘이 만유를 싸고 있는 모습과 같다. 따라 乾金에 배속한다. (乾은 五行을 배속할 때 陽金이 된다.) 또 肺는 꼭대기 까지 올라간 陽氣를 下降시키는 肅降作用을 포함으로 또한 兌金에도 배속된다.(兌는 五行에서 陰金이 된다.)

腎은 오장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하니 마치 땅속을 흐르는 물에 비유할 수 있다. 坎卦의 모습도 外陰而內陽이니 陽氣가 땅속에 潛藏해 있는 모습임으로 腎은 水에 배속한다.

肝은 腎의 水氣를 끌어올려 升騰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 體陰而用陽이어서 藏血하는 體陰에는 巽木을 배합하고 疏泄하는 用陽作用에는 震木을 배합한다.

心은 陽氣가 上升하여 가장 旺盛한 자리이니 離火가 配合된다.

脾는 土에 속하고 中州에 위치하며 運化作用을 하여 氣血生化之源이 되니 坤土가 되면서 동시에 上下升降之樞紐가 되고 食氣를 全身에 播敷하는 主体가 되니 또한 艮土에 배속된다. 이는 八卦를 오장에 배합할 때 각각 하나씩 배합하고 남은 3개의 卦를 육부에서 찾아 배합했던 과거의 배합법보다 간

단하면서도 합리적이다.

## 5. 命門에 대한 闡發

하문요는 明代의 孫一奎, 趙獻可, 張介賓 등의 命門學說을 계승하고 總結한 토대위에서 “두 개의 腎은 水가 되고 命門의 火가 여기에 붙어 일으니 一陽이 二陰속에 갈무리 되어 있는 것이니 卦에서는 坎된다. 그리고 藏府가 처음 뭉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직 腎中의 水火로 先天을 삼는다.(兩腎爲水에 命門之火寓焉하니 一陽이 藏于二陰之中이니 于卦爲坎이오 以藏府之始結이 在此故로 獨以腎中水火로 爲先天也라. 『醫編·水火說』)<sup>13)</sup>고 하였다. 이는 腎을 水로 보고 命門을 水中之火로 본 것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견해이다. 明代의 醫家들은 命門의 부위에 집착하여 孫一奎는 命門을 兩腎中間之動氣로 보았고, 趙獻可는 命門이 兩腎中間에 있는데 七節之旁 中有小心 자리로 배꼽과 相對하는 곳에 있다고 하였으며, 張介賓은 여자에게는 產門이요 남자에게는 精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부학적 부위에 집착하면 韓醫學의 思考를 구속하거나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는 五藏之氣의 순환 속에서 命門火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脾가 그 精英之氣를 運行한다. 비록 諸藏에 周布하지만 氣는 親上하는 作用이 있어 먼저 上膈于肺하니 이것이 脾土生肺金이다. 肺가 脾氣를 받으면 더욱 왕성해져서 水를 생성하여 下降하여 그 은택이 온몸에 이르니 이것이 肺金生腎水이다. 肺가 생해주는 작용을 받아 腎水가 더욱 풍족해지면 坎中之陽인 命門火가 이를 썬서 氣로 변화시켜 上升하여 肝으로 들어가게 하니 이것이 腎水生肝木이다. 肝이 腎의 도움을 받아 氣가 왕성해지면 위로 心陽을 資養하여 光明을 發하게 하니 이것이 肝木生心火이다. 脾가 飲食을 運行할 수 있는 것은 氣이다. 氣가 寒하면 凝滯되어서 운행하지 않게 되지만 心火를 얻어서 따뜻하게 되면 健運不息하게 되니 이것이 心火生脾土이다. 『醫編·五藏

13)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4.

生克說』”14).

위의 내용은 오장상생의 기전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서 命門火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火가 腎에서 근원하여 心에 屬하는 이유에 대해 “腎은 水之宅이지만 陽根於陰하여 腎에서 火가 생겨나니 아래에 잠겨 있다가 上升하는 것이고, 心은 火之宅이니 자기 집에 이른 뒤에 왕성해지기 때문에 왕성함을 따라 心에 속한다. 『醫編·火水說』”15) 라고 하였다.

그는 腎 命門속에 있는 先天之火와 飲食으로 배양되는 後天之氣血을 구분하였다.

그는 『醫編·命門說』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氣血은 水火의 大綱이다. 人身의 呼吸運行과 知覺神明은 모두 이 火가 作用하는 것이다. 氣는 呼吸運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知覺運動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氣가 비록 火이지만 火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人身의 血液精髓는 모두 이 水가 작용하는 것이니 血은 단지 水中之赤인 물질일 뿐이지 그 나머지 까지를 포괄할 수가 없다. 따라서 血이 비록 水이지만 水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胎兒가 처음 생겨날 때 이슬이나 구슬처럼 뭉쳐 있는 것은 父母의 精氣니 이 水火는 先天之先天이다. 몇 달이 지나 형체가 생긴 뒤 血氣가 충족해 지는데 이때의 血氣는 先天之後天이다. 이미 태어난 뒤에 飲食으로 길러지는 血氣는 後天이 된다. 先天은 사실상 後天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水火는 氣血之源이 되고 下焦는 또 中土之根이 된다. 따라서 腎·命門은 水火之本이 된다.”16)

따라서 그는 六味丸과 八味丸을 씌어 있어서도 오래된 증상과 敗證에는 좋지만 만약 질병 초기에 갑자기 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初病은 단지 後天의 血氣만을 손상시켰을 뿐이고 아직 先天의 水火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熱藥을 쓰면 寒이 사라지고 寒藥을

쓰면 熱이 물러나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찌 다른 것을 구하리오.”17)라고 하였다.

## 6. 水升火降의 원리를 밝힘

하몽요는 “心火가 위에서 타고르고 腎水가 아래에서 축축한 것은 坎離의 고정된 자리이고, 火가 위에 있으나 下降하고 水가 아래에 있으나 위로 올라가는 것은 坎離가 사귀는 것이다. 腎水가 上升하는 것은 肝木이 끌어올리기 때문이니 地道가 左旋하여 하늘에 오르는 것이요, 心火가 下降하는 것은 肺金이 수렴하고 억제하기 때문이니 天道가 右旋하여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心火上炎 腎水下潤은 坎離之定位也오 火在上而下降하고 水在下面而上升은 坎離之交媾也라 腎水上升은 由肝木之汲引이니 地道左旋而上于天也오 心火下降은 由肺金之斂抑이니 天道右旋而入于地也라)”18) 하였다. 이는 水升火降의 원리를 요약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水升火降이란 腎臟에 배속되는 坎卦(☵)의 眞陽(眞氣)에 해당하는 命門之火가 腎水를 쬐서 氣化시켜 위로 올라가게 하여 心臟을 서늘하게 하고 心陰을 보충시켜주며, 心臟에 배속되는 離卦(☲)의 眞陰(眞水)에 해당하는 心陰이 腎水의 滋潤을 얻어 心火를 下降케 하여 腎臟을 따뜻하게 하고 역시 腎陽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말해보면 腎陽의 蒸騰에 의해 腎水가 上升하면 制心火하고 濟心陰하며 이로 인해서 心火가 下降하게 되면 溫腎水하고 助腎陽하여 心火와 腎水의 交流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水火既濟 또는 心腎交媾, 心腎相交라고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平衡協助의 관계이다. 하몽요는 이때 肝木의 汲引作用이 水升을 도우며 肺金의 斂抑이 火降을 돕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만의 독특한 주장이며 또한 이때 가운데에居하는 脾臟이 上下降之樞紐가 된다고 하여 水升火降은 心腎을 爲主로 하지만 五臟이 모두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醫編·發熱』에서 “火의 성질은 본래 위로 타올라서 밖으로 드러나나 水를 가지고 제압하면 離

14)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7~8.

15)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5.

16)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7.

17)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7.

18)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4.

卦가 坎卦와 사귀게 되니 龍이 못에 잠기게 되면 안에 쌓이고 저장되어 神明한 작용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 사귀면 交泰를 이룬다. (火性은 本上炎而外現이나 得水以制之면 則離交于坎하니 龍潛于淵하면 內蘊而爲神明하고 下濟而成交泰라.”<sup>19)</sup>고 하였다. 그는 心藏神하고 腎藏精하는데 精神의 相交가 또한 志가 안정되고 神이 편안하게 되는 중요 요소라고 하였다.

“心の神이 아래로 내려가 사귀면 腎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 志가 안정되니 즉 이 神은 坎中之一陽인 것이요, 腎의 精이 위로 올라가면 心이 滋養을 받아 神이 편안해 지니 즉 이 精은 離中之一陰인 것이다. (心之神이 下交則腎有所主而志定하니 卽坎中之一陽也 오 腎之精이 上奉則心有所滋而神安하니 卽離中之一陰也라. 『醫編·恐』)<sup>20)</sup>

精은 腎에 있으나 心으로 올라가 離中一陰이 되어 神을 滋養할수 있고 神은 心에 있으나 腎으로 내려와 坎中一陽이 되어 志를 안정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精과 神은 互根互用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으로 水升火降의 원리를 精神의 相交에 까지 확대한 것이다

## 7. 氣血이 모두 腎에서 根源함을 밝힘

氣血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이며 인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물질이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氣의 來源으로는 부모로부터 稟受받은 先天의 精氣, 음식물 중의 水穀의 精氣(간단히 穀氣라고 한다.), 그리고 자연의 淸氣를 말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血의 來源에 대해서는 『靈樞·決氣』에서 “中焦受氣取汁하여 變化而赤을 是謂血이라”고 하였다. 이는 中焦에서 음식물 중의 精微之氣인 營氣와 津液을 결합하여 붉게 변화시켜서 血이 생성됨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氣와 血의 생성바탕이 脾胃에서 받아들인 水穀에 뿌리를 둠으로 일반적으로 脾胃를 氣

血生化之源, 또는 後天之本이라고 불렀다. 또 『素問』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서는 心主血하고 血의 색이 붉은 것 등에 연유하여 心生血한다고 하였다.

하몽요는 氣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氣와 血 모두는 先天에 뿌리를 두고 後天에 의해서 길러진다. 내경에서 營氣가 中焦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또 心生血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胃가 穀氣를 받아 쪼서 변화시켜 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니 血色이 붉은 것은 心火를 품부 받은 것을 말할 따름이다. 요약하면 血은 天一之水(血의 맛이 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고 氣는 坎卦중의 陽爻이니 모두 腎에 근원을 두고 있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氣與血并이 根柢于先天하고 而長養于後天이라 經에 謂營氣出于中焦라하고 又謂心生血이라하나 不過以胃受穀氣하여 蒸化成血이니 血色之赤은 稟于心火爲言耳라 要之컨대 血卽天一之水오 (觀血味鹹컨대 可知라) 氣爲坎中之陽이니 同根于腎하여 無岐出也라. 『醫編·氣』)<sup>22)</sup>

그는 또 精·髓·血·乳·汗·液·津·涕·淚·溺가 모두 水로써 다함께 腎에 속하지만 血色만이 붉은 것은 血이 心火의 품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腎은 水에 속하고 心은 火에 속하니 水가 火에 사귀어 血이 완성된다. 心火가 완성시키기 때문에 내경에서 心生血이라고 하였다. 또 血屬於心이라 하였고 또 心主身之血脉이라고 하였다. (腎屬水하고 心屬火하니 水交于火而血以成이라. 以其爲心火所成故로 經謂心生血이라하고 又云血屬於心이라하고 又云心主身之血脉也라. 『醫編·血』)<sup>23)</sup>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腎은 水로 모든 水氣는 다 腎에 속하니 血도 水로 근본적으로 腎에 속하며 血色이 붉은 것은 心火의 품부를 받았기 때문이고, 腎은 坎卦에 속하고 氣는 坎中之陽이 됨으로 氣血이 모두 腎에서 근원한다고 한 것이다.

19)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82. p.38.

20)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82. p.244.

21) 羅昌洙 外 17인 共編. 韓醫學總講. 서울. 의성당. 2003. p.317.

22)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82. p.22.

23)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82. pp.25~26.

그가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태아가 腹中에 있을 때 아직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血이 있으니 血이라는 것은 先天之水로 後天 수곡의 기운을 빌려서 長養되는데 불과하니 전적으로 後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兒在腹中에 未嘗飲食이나 先已有血하니 可見血爲先天之水로 不過借后天爲長養이오 非全靠後天也라. 『醫編·血』)<sup>24)</sup> 한 주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氣血은 인체의 생명 활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음양물질로써 腎이 先天之本이 되고 腎은 元陰과 元陽을 주관하여 인체의 陰陽平衡을 調節하는 根本이 됨으로 先天水火의 大綱이 되는 氣血이 모두 腎에서 根源한다는 주장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된다.

## 8. 結 論

何夢瑤의 生涯와 醫易思想에 관하여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몽요는 어렸을 적에 가정이 넉넉하고 뜻이 호방했으며 여러 분야를 깊이 연구했으나 특히 詩文이 뛰어나 南海明珠라는 칭찬을 받았다.
2. 그는 청나라 때 진사에 급제한 후 의학을 공부한 몇 안 되는 의가중의 한사람으로 대표저서로는 『醫編』이 있다.
3. 그는 王肯堂의 의학을 추종하였고 溫補에 치우친 당시 의가들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4. 그는 周易은 君子를 陽으로 보고 小人을 陰으로 여김으로 扶陽抑陰하는 것이 옳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陰陽은 모두 氣임으로 증상을 따지지 않고 溫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 溫補之劑가 비록 平穩하지만 溫補法도 殺人할 수 있으므로 虛實을 不問하고 溫補만 하는 당시의 폐단을 통박하였다.
5. 그는 오장에 팔괘를 배합함에 있어 肺에 乾金 兌金을, 腎에 坎水를, 肝에 震木 巽木을, 心에 離火를, 脾에 坤土 艮土를 배합하였는데 대단

히 합리적이다.

6. 그는 命門의 部位를 고정시키지 않고 腎에서 작용하는 水中之火라 하였는데 역시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이며, 命門火가 腎水를 썬서 氣로 변화시켜 肝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水生木이라 하여 命門火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7. 그는 心火上炎, 腎水下潤은 坎離之定位이고 水升火降은 坎離之交媾로 水升火降에 肝肺가 협조를 하고 脾가 升降之樞紐가 되어 오장이 모두 관여 한다고 하였으며, 精神도 互根하여 升降作用을 한다고 하였다.
8. 그는 氣血이 모두 同根於腎한다고 하였는데 氣血은 생명활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음양물질로써 腎이 先天之本이 되고 腎에는 元陰 元陽이 있어 陰陽의 平衡을 調節함으로 이론적으로 타당함이 있다고 사료된다.

## 參考文獻

1. 羅昌洙 外 17인 共編. 韓醫學總講. 서울. 의성당. 2003. p.317.
2. 永瑨等撰.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p.875.
3.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2, 3, 4, 5, 26, 38. pp.7-8.
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494.
5. 洪元植 外 2人.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345.

24)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26.